

보도 일시	2022. 10. 27.(화) 17:00	배포 일시	2022. 10. 27.(화) 10:00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 김혜련 (042-481-2095)
		담당자	사무관 김미영 (042-481-2098)

한-몽골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재체결

- 통계현안 관련 지속적 교류협력 기대 -

- 한훈 통계청장은 10.27.(목) 통계청에서 베 바트다와(Batdavaa Batmunkh) 몽골 통계청장과 양국의 통계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통계협력 업무협약(MOU)을 재체결하였다.

※ 2002년 「한-몽골 통계협력 업무협약」 최초 체결후 2005년과 2013년 재체결

- 통계청은 2002년 몽골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 18회의 양자 회의를 통하여,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등 국가통계의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.

- 지난 MOU 체결기간 동안 통계청은 매년 고위급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와 더불어서 2012년에는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으로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인 국가통계포털(KOSIS)을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몽골에 이식·구축하였다.

- 또한, 몽골 통계청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, 정보기술(IT) 기반 통계시스템 구축 등의 주제로 지속적인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몽골 통계청의 인적역량 강화 및 통계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다.

- 이번 통계협력 업무협약 재체결은 ▲양측의 통계협력분야 저변을 확대하고 ▲그간의 생산적인 통계협력 성과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.

- 한훈 통계청장은 “빅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등 급변하는 통계작성 환경에 대응하고, 데이터거버넌스 구축 등에서의 각국 통계청의 역할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통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밝히며,
 - “앞으로도 한국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,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,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지표 작성 등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에서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몽골 통계청과 공유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이에 베 바트다와 몽골 통계청장은 “20여년간 한국 통계청의 지속적인 몽골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”며
 - “몽골통계청이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인 정부거버넌스 및 데이터 관련 중장기 로드맵 구축에 한국 통계청의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, 이번 업무협약(MOU) 재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양국간의 협력을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업무협약 서명식 직후 양측은 향후 행정자료 활용 통계, 통계시스템 인프라 구축, 인적역량강화 분야 등에서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한 지원 및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

한국 통계청, 몽골 통계청과 통계협력 업무협약 재체결
(오른쪽 한 훈 통계청장, 왼쪽 베 바트다와 몽골 통계청장)



한국 통계청, 몽골 통계청과 통계협력 업무협약 재체결 기념 촬영
(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 훈 통계청장, 왼쪽에서 세 번째 베 바트다와 몽골 통계청장)